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책임 이 철
편집장 이 인 우
발행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131 서울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두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 다 253호)

제 3 2 7 호
<주간>
1981년 10월 1일
매주 목요일 발행
(1 년 구독료 5 천원)
등록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X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우리말의 쓰임새 우리말을 찾아

순수한 우리말에 어떤 것이 있나를 찾아보기로 한다.

우리의 언어생활은 좀 이상하게 되어가는것 같다. 한자어(漢字語)에 젖음에서 순수한 우리 말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쓰는줄로 알기가 일쑤고, 게다가 외래어를 듬성듬성 섞어야만 식자(識者) 행세를 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 순수한 우리말로만 말이나 글을 엮어간다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언어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무처·학생처 업무 분산처리

교학과장 임명끝내고 10월중 업무개시

지난 9월28일, 송장과 처·실장, 각 단과대학장이 모인 회의에서 각 단과대학별로 교학과를 두어 단과대학별 행정·사무처리를 맡게 될 것으로 확정되었다.

각 단과대학에 설치하는 교학과는 교무처와 학생처의 업무를 일부 분담하여 처리하게 되어 단대별로 전임교수 중에서 교학과장을 임명하고 사무직원을 두어 행정사무처리를 하는것으로 알려졌다.

단대 교학과는 본관 1층 교수실옆에 설치하게되며 사무직원은 대출자로 서양어대와 동양어대에 각 1명씩, 법정대와 상경대에 1명, 사범대와 문리대에 1명을 각각 배치하였다고 한다. 각 단과대학별로 임명된 교학과장들의 명단을 보면 서양어대에 조용국(S·부교수), 동양어대에 최창성(Th·부교수), 법정대학에 이순성(L·부교수), 상경대학에 박석구(BA·전임강사), 사범대학에 여창혁(KE·조교수), 문리대에 김치면(물리·교수)가 각각 내정되 있으요 나타났다.

이로써 용인대학과 2부는 폭수성을 고려하여 교학처산하에 교학과를 두고 나머지 6개 단과대학은 교학과를두어 전체 단과대가 행정력을 갖추게 되었다.

단과대학의 교학과는 교무처및 학생처의 업무를 단대별로 분담하여 맡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미 학기초에서 간표및 학사일정이 작제에서 단대별 교학과인무분담을 없투에 두지 않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학간의 업무만 분담하여 처리하여 앞으로 확장시켜 나갈것이라 한다.

분담업무중 이전에 교무처에서 처리하던 업무는 수강신청과 장학진행, 성적처리, 학생출결, 교·상사단무연학등을 담당하도록 분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기초 교무처에서 수강신청 안내서 배부 및 학수표 배부와 접수, 수강신청인원등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강의시간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시험진행이나 성적처리 등이 교무처와 단과대 담당직원이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주선 교·강사담무연학이나 장학진행 과와, 학생처 출결확인등의 업무만이 처리하게 될 것이라 한다. 교직전기는 사범대학에서 처리하여 문교부전계만 교무처에서처리하게될것이라한다.

현재 학생처소관입무중 각단과대학 교학과에서 처리하게 될 업무는 단과대 호국 단 이념생활지 행사지도, 단과대학생 면담지도, 장학생선발에 따르는 업무및 학생신상명세서 관리등이 이전된다. 그리고 졸업서발급관계는 학생처에서 처리하던 학생증및 통학권과 과외학습허가서만이 현재 이전되며 유고결석전계등은 학생처에서 처리된다.

앞으로는 취업업무및 병사등의 문제도 단과대 교학과로 이관할 방침이며 학생처는 총괄적 업무만 담당할예정이다.

1학년 병영훈련
11월 9일~14일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병영집체훈련의 일정이 확정됐다.

1학년 일반군사교육대상자 전원과 2, 3, 4학년중 정당한 사유로 미입소했던 학생등 총1950명이 참가하게 되는 이번 훈련은 11월 9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성남시 시문무대에서 실시할 것이라한다.

예년과 달리 입소기간이 5박 6일로 단축됨에 따라 훈련시간도 80시간에 40시간으로 줄어들어 위문행사는 폐지됐다.

종합군장검사는 11월 7일(토)에 1차 실시되며 출발일에 최종검사가 있게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던 머리는 공무원형이라한다.

총24기 훈련중 머리는 23기준련으로 고려대와 함께 입소한다.

C N A 본교 1명합격
N과4년 류재규

재무부는 지난 24일 제16회 공인회계사(C.P.A) 2차시험의 합격자 72명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본교 류재규(N4)군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교측에서 게재 확인 중이나 아직까지 더이상의 합격자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신규 서어클 등록 전면 보류

9개신청 서어클 전면 재검토
학내사태로 1개 서어클에 해체 통고

1학기 서어클등록에 발생된 문제점을 다시 고려하여 8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실시한 신규서어클 추가등록이 9월28일 김동선총장, 각 단과대학장및 각처 실장이 참석한 학생지도 위원회에서 확정되었다 29일 발생한 학내사태로 인하여 전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28일 지도위원회에서는 9개 서어클이 신규서어클에 등록신청을 내었다가 민족사상연구반과 여성문제연구반이 각각 박성래교수와 김여심교수를 지도교수로 하여 등록이 허가 결정되어 남도 품을 배당 받으며, 배구반은 축구반과 국제클럽,한국연구반은 탁구반과 함께 시사문여연구반으로 발전적 통합 조정되어 서어클을 합계 쓰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29일 학내 사태로 인하여 학생처는 2학기 신규서어클의 추가등록을 전면 보류하게 된것이다.

한편 등록이 결정되지 않은 서어클들의 이유는 RCY는 고등학생 수준의 봉사활동을 내용으로하는 서어클이어서 대학내 등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일반과학연구반은 주제적 목적상에 1학년들의 농업부족을 이유로하여 등록이 허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슬람 지역 연구반은 우리학교의 교과과정중 지역사정과 중복되며 지역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등록을 허가하지 않았다.

어문촛점

모였던 사실조차 알을 수 없다. 이제 가을, 우리 시대엔 추상적 질이만 더해가고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어스름 저녁빛만이 짙게 물려든다.

모였던 사람도 흩어진 지금, 우리는 좀더 진실한 행동을 위하여 먼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생각해보자.

법정 학술토론대회
11월예정 원고모음

법정대학에서는 11월 초순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원고를 모집하고있다. 올해로 제 7회를 맞는 법정대학술토론회는 「한미수교 100주년을 앞둔 한미관계의 제(諸)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학생들이 각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목을 주제 내에서 자유로이 선정하여 참가할 수 있다.

논문은 60매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월15일 까지 학과 학생장실 및 법정대 호국단에서 접수한다.

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및 입외상으로 나뉘어 각각 상패와 부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외대문화상
「외대」지 작품모집

본교 교지인 「외대」지의 편집위원회에서는 제 5회 외대문화상의 작품을 모집한다.

대학문화의 종표전작을 위해 마련된 이번 외대 문화상의 모집부문은 시와 소설 그리고 문학평론과 논문등이며 응모대상은 본교생은물론 법대학학으로 실시된다.

시는 5편이상, 소설과 논문은 100매내외의 마감은 11월30일이며 「외대」 편집위원회로 제출하면 된다.

후기졸업생 취업률 계속증가

취업대상 27개과중 19개학과 100% 취업

80학년도 후기졸업생 취업률이 9월20일, 현재 남학생 93.4%, 여학생 75%, 총 92.4%로 집계되었다.

이는 금년 전기졸업생의 취업률보다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서, 이는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호전으로 인한 각기업의 취업문호가 매우 넓혀진데 기인한다고 하겠다. 한편 금년 후기졸업생의 취업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분야는 무역, 제조업계통이 두드러졌으며, 그밖에 보험, 금융업, 건설, 항공, 교직, 인문·방송및 국영기업체, 개인사업등으로 나타났으며, 고시준비및 군인대, 대학원진학도 다수 있었다.

한편 금년 역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타전공분야 진출, 교직기피현상등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사법대학은 총 9명의 졸업생중 단 2명만이 교직에 취업하는 등 전공연계취업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금년도 후기졸업생의 취업상황을 놓고볼 때, 82학년도 졸업생들의 취업률도 본교의 특수성이 비춰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 졸업생의 과별 취업률은, 총 27개학과중 득일어과를 비롯한 19개학과가 100%의 취업률을 기록했으며 법정계열 학생들의 취업률은다소 부진했다. 전체 취업률은 145명중 134명으로 92.4%이다.

자단과대의 취업률은 다음과같다.

구분 / 학과	서양어대	동양어대	법정대	상경대	사범대	총 계
졸업생 수	56	50	14	16	9	145
취업자 수	53	47	11	15	8	134
미 취 업	3	3	3	1	1	11
제조업체, 무역, 은행	32	24	3	6	1	56
해운, 수산, 항공	4	2	1			7
금융, 보험	6	4	1	4		15
국영기관		1			1	2
인문, 방송	1	2	1	1		5
연구, 교직		1		1	2	4
건 설	4	3		1		8
개인 사업	4	2		1	2	8
진 학	7	9	2	1	2	21
고시 준비	1		3			4
인 대	3					3
취 업 률	94.6%	94%	78.5%	93.7%	88.8%	92.4%

보직이동및승진임용

Argus 주간에 박성래교수

본교는 2학기를 맞아 교수승진과 보직을 맡은 교수들이 임기반료및 외국정부초청 해외연수로 장기 해외체류로 일부 학내 보직의 이동이 있었다.

Argus주간 진반기 교수(PA)는 임기반료로 한국지역문제연구소장에 위임되었으며, 박성래교수(교양)가 새로 Argus편집인입 주간직을 맡게 되었다.

한국지역문제연구소장 안병만 교수(PA)는 미국정부 초청으로 Delaware대학 연구교수로 떠났고 전 불어과장 서정철교수가 국비해외파견 교수로 해외체류하게 되어 보직을 면하게 되었다.

또한, 이단어과의 김정위교수가 이단어 과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이춘식교수가 불어과장직을 맡고 이두선교수가 용인대 교학과장에 임명되었다.

또한, 불어교육과장 송정희교수는 대학원 각과정 불어과 주임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수들이 진흥학문연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보직발령을 거리는것으로 알려졌는데 학교측에서는 보직의 임기반료후에 해외연수 등으로 그동안 저간연구에 도움을 주도록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또한,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있은 8월 25일 승진된 교수는 다음과 같다.

▲한홍순 (EcK부교수→교수). · 박성래 (교양과정조교수→부교수) · 김충남 (G부조교수→부교수) · 정형태(M과조교수→부교수) · 전길 (R과전임강사→조교수) · Rafal Gozdik(R과전임강사→조교수)

서학생처장사임
29, 학내 사태로 휴강

지난 29일 있었던 학내사태로 인해 이날 오후 강의가 전시 휴강되었다.

김동선총장은 김규 교수회의를 소집하고 29일 오후에 학내 휴강키로 결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사태로 인해 서명환 학생처장이 사임하고 석일규교수 (한교과 부교수) 가 처장직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11월개최예정
세민제 사회자확정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 7회 세계민속예술제의 전체 사회자가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 사회자의 김정은 대학내의 역량있는 사회자답게 공하기 위하여 참가팀만 하였는데 4명의 사회자에 총 39명이 응시하여 약1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확정된 명단은 오세규(P·2) 김명미(E·3)군과 윤명로(KE 3) 양옥경(KE·2) 양미애이번 선사는 석일교교수와 비롯한 5인의 선사위원이 검정하였는데 시청각교육의 영사실과 FBS의 기재를 이용하여 사회자의 기본요소와 감성테스트, 부대 예절 등을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학년 중간고사 없어
수학여행으로 차질 빚어

교무처에서는 3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이 중간고사기간중인 10월 7일부터 19일사이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3학년생들은 정규과목에 한해서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으로 성적평가가 되는것으로 알려졌다.

9월24일 제인력 대표자회의에서 각과 회장단과 교수단측이 결정하여 학생처와 한의하여 결정된 3학년 수학여행 일정으로 교무처에서는 3학년 중간시험을 실시할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3학년이 아닌 학생으로 3학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3학년과 같이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기말고사만 치르게 된다. 그리고 1·2·4학년 정규과목으로서 3학년 학생이 수강할 경우 3학년 학생들은 이과목에 한하여 수학여행이 끝난뒤 1주일이내에 성적인정원서를 제출하면 유고처리가 되어 기말고사 성적이 전체 성적의 100%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3·4학년 공동수강과목도 중간시험은 실시하지않는다.

상경대 단지창간
앞두고 원고모집

상경대학 학도호국단에서는 상경대학의 단지 (團誌) 창간을 앞두고 상경대학생 전의 대의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분야는 경제학, 경영학 등 비롯한 사회과학 전분야에 걸쳐 200자원고지 50매이상의 논문을 비롯해 짧은 분량의 고전일 신간서, 논문을 중심으로한 200자원고지 20매이상 40매정도의 서평및 논평등이다. 특히, 상경대생의 경우는 논문은 물론 시, 소설등 문학전반과 자연과학분야까지 광범위하게 응모할 수 있다.

이번 창간호에는 본교 상경대가 주최하는 제10회 상경학술토론대회에서 입상한 논문도 싣게 된다고 한다.

종합대학으로의 개편후 각 단과대마다 이미지 부각을 위해 힘쓰는 한편 단지의 창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진정한 학생의 발표토론장으로서 단지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게르만 어문학회장
「쉐네」박사특강

한국독문학회와 수만 독일문화원이 초청으로 한국에온 「알버트쉐네(Albert Schone)」 교수의 강연회가 10월 5일 10시30분연수원강당에서열린다.

독일 괴팅겐의 「게오르그—아우구스트」 대학의 독어학 세미나 교수이며 국제게르만 어문학협회의 회장인 「쉐네」 박사는 바로크문학과 세종주의문학에 대한 학문적 비평로서 이름이 높으며 이번 본교의 강연에 있어서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있어서 마녀들의 사바트와 악마소배(HE XENSABBAT und SATANSKVLT in GOETHE'S FAUST)」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나무가 고즈넉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곳지 아니한다. 집목하고자 하여도 집목반이 정당화 필수있는 언어부대의 자유로운 사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소리없는 아우성과 침묵이 내적 상황의 역학적 관계에서 년수로서 존재해야다가, 피압박이 증가될 때 피압박의 현실이 진실하지않다는의식을 근거로하여 그이상의 정도로 전환하게 된다.

이같은 상황은 숱한 예가 제시될수 있다. 3·1절의 함성과 동학농민의 저항능은 해방의 목소리, 미국의 폭인반대, 플란드 자유노조와 여러나라의 학생운동이 실상적 지식과 경험으로 지각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

▲한사회가 사회로서 존속하기 위해서는 민의(民意)의 수렴과 합리도 의식의 민중(民衆)에로의 확산의 상보적 정합을 공유하여야만 일치할 수 있다. 이로써 통합적 발전이 가능하고 통합의 여정(旅程)에 놓여있는 장애적요소의 파괴가 불가피하여, 또한 집단 내적·외적요로 갈등이 부단히 표출되고있다.

대개 이러한 갈등에의 참여는 의식적이어 정치적 극연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멜(Simmel)등의 사고를 가진자는 인간본성에 내재하는 선천적 투쟁을 인자 (因子)로 보고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론은 인간의 개발 그리고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역학은 진실과 진리의 추구하지식의 전수, 인간의 개발 그리고 사회발전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 이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조적 비판능력의 개발과 독립적이어 지속적인 진실과 진리를 추구할수 있는 역학인이 스스로의 의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미이상 논리이전의 압력과 논리이후의 상황이 사실을 떠난 비논리와 논리부재의 허위적 사실을 비호해서는 안된다는 양식심이 역학에 부르나래야 할 중죽사일 수 없으며, 힘을 가지지 못한자들이 현실과 일체가 됨으로써 자기자신을 말살해버리는 일종의 보신의태 (保身擬態) 이다. 조직적 이성과 자연의 악마적 종합에의 방종은 보다 불순한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힘한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가 현재사 (史) 가 되지못하는 현재사 (事) 에 부딛히 게 되는것은 있을수 없는 한 바라슬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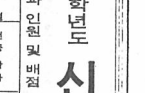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역학은 진실과 진리의 추구하지식의 전수, 인간의 개발 그리고 사회발전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 이 존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조적 비판능력의 개발과 독립적이어 지속적인 진실과 진리를 추구할수 있는 역학인이 스스로의 의식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미이상 논리이전의 압력과 논리이후의 상황이 사실을 떠난 비논리와 논리부재의 허위적 사실을 비호해서는 안된다는 양식심이 역학에 부르나래야 할 중죽사일 수 없으며, 힘을

[박정호]

논리부재의 현실

우리말을 찾아



▲학내사태로 임시휴강
—징검다리 휴일에 하루더 쉬어고 놀아라는 자도있었으나 불쾌(淸)없다.

▲이규호 문교부장관과의 서면 대화
—직선과 포물선?

1982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항

1 모집학과 인원 및 배점

대계열	학과	1982학년도 입학자 정원	1982학년도 입학자 지원자	배점	고교성적	출결	보충점	비고
대학	서양어대							
대학	동양어대							
대학	법정대							
대학	상경대							
대학	사범대							
대학	대문리학과							
대학	대서양어							
대학	대동양어							
계								

2 모집 단위 및 전공 분야 및 전형 일정

대계열	학과	내용	1차	2차	추가모집	장소	비고
대학	서양어대						
대학	동양어대						
대학	법정대						
대학	상경대						
대학	사범대						
대학	대문리학과						
대학	대서양어						
대학	대동양어						
계							

2면으로 계속

정치학에 있어 사실, 가치, 인식론

최 선 근

Ⅰ. 서론

『정치학을 어떠한 성격의 학문으로 규정지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논쟁의 출발점이 되는것이 바로 사실과 가치와의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사실과 가치의 구별을 지식의 기반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된다. 『사실』은 『무엇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발생하는가?』에 관련되며, 『가치』는 『무엇이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이 발생되어야 하는가?』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구별을 다시 말하면, 서술적인 진술과규범적인 진술과의 구별을의미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서술적인 진술은 실재(reality)에 관한 증명된 진리를 언급한다. 이것은 어떠사물들을 간의 관계를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었어사항들이 무엇을 하며, 일으며, 또 바라는가를 진술할 수도 있다. 한편, 규범적인 진술은 바람직한 것에대한 개념을 언급한다. 즉, 그것은 가치진술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두가지 진술에있어서 『무엇이 진정한 지식의 기반이 되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학문이 의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결정할수 있다. 이문제는 또한 수단과 목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된다. 수단에 치중할때, 우리는 『사실』의 영역을 넘어 서술적으로일하는 것이며 목적에 치중할때, 우리는 『가치』의 영역을 넘어 규범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에서와 같은 학문에있어서의 기본적인 문제를경제학적으로 이해하여보고자한다. 이러한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여보고자한다.

Ⅱ. 사실

1. 사실(Fact)이란 무엇인가

사실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관찰』이라고 정의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일치에대해 바탕한 여지가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사실이라고 정의한다. 또 어떤 사람은 사실을 『이론적인관심에 있어서 실재(reality)의 특수한 질서(ordering)』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이상의 세 정의 이외에도일 수 있는 방법에 의한 실재에 관한 탐구나 진술을 사실로 간주할 수도있다.

어차피,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이란 주상적이고, 사회적이고, 일반적이고, 부정적이며 관찰할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참고하고, 개념적이며, 실증적이고, 관찰할수 있으며, 특정한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할수 있다.

2. 정치학에 있어서의 사실

정치학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찾는다는 것은 끝이 없는 작업이다.

하나하면, 정치학의 영역에 있어서의 『사실』은 부한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정치학에있어서의 『사실』은 정치학자에 의해서 선택되어지며, 이것은 정치학의 『법칙』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정치학자의 역할을 자기가 외운시 하는 문제에 관한 『사실』을 수집하고, 나열하는 것이 한정되어질 수 없으며 『사실』과 『가치』의 관계를 관찰하여 주리과정에 있어서 『사실』을 명백한 증거로서 이용하여, 그가 이런에 모르면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Ⅲ. 가치

1. 가치(Valeu)란 무엇인가?

『가치』는 인간의 필요, 태도, 바램의 어떠한 대상을 의미한다.

『가치』는 『존재(existence)나 『사실(Fact)』과 매조되는, 숙어에 관한 총체적인 명사로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가치』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정확하게 비판되어질수 없으며, 심지어 가치에 관해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한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도하다. 『가치』와 『사실』과를 분명히 관련지우지못하는일은 『가치』와 『사실』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가치』는 『사실』에 대한 주장일 수 있으며, 『사실』관찰은 가치관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가치관념은 사실의 관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가치판단(Value judgement)

가치관념은 우선적으로 상정에 대해 상상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능력에서 발생되는 감정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현상은 사회적으로나 지적으로 제한되어진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가치관념은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확인되어질 수 없다.

사실(Fact) 에 기반을 둔 가치관단에 있어서, 과학은 그러한 기반의 질(quality)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관찰됨으로 이러한 가치의 문제에 치중하여 인간의가치관념에 대해 논력을 집중, 규범적인 정치철학이 되는, 이에는 큰게 세가지 입장이 있다.

3. 전통적인 규범적 정치철학

(1) 이성론(Rationalism)과 직관론(Intuitionism)

이것은 Plato에서와 같이 궁극적인 진리가 이성적 과정(rational process)에 의해 발견되어 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직관론은 인간의 직관에 의해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학문을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든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 위대한 두명의 철학자가 결코 진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도 『무엇이 결국진리인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바람직한(desired)것과 좋은(good)것을 깊게 보는입장

이것은 19세기의 공리주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심리학인 행복감에 의해 결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서 바람직한 것과 좋은것을 서로 같게보는 것 궁극적인 목적을 모두가 일치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치관의 문제가 위와 같이 세가지 입장에서 어떠게 취급되어져 왔든지 간에, 규범적인 정치철학은 정치, 인간의 행동이나 그 원동의 과정에 대한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여 최선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어떤 추리에 있어서의 결론유도에 대한 비판을 행하기도 한다. 또한 주어진 사회에 가치관념을 적용하려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린다.

4. 과학적인 가치 상대주의

이것은 진리나 가치의 립맥성을 부정하고 그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일정한 조건이나 전제아래에서의 타당성을 찾고자하는 인간이 갖는 가치와 ②강력히 또는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Ideas) 의 주가증투에 관계 없이 어떤 목적이 가치 있는가를 파악 필요로 결정한다는 것은 잘가능하다는 입장을취한다.

결론적으로 과학적가치상주의에 의하면 『궁극적』이고 『최상의』 또는 『절대적』인 가치나 『가치의 표준』은 감정 신념 직관 본능 그리고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는것이어 그것들은 결국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어질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단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있어서 포함되어있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명백하게 해주어 그런한 가치에 관한 아이디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데 있어서만 도움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치적 요소들을 항상 넘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관찰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입장에,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을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떻게, 에기치 않은 불 방사선화와 같이 입증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Ⅳ. 인식론

1. 인식론(Epistemology) 이란?

인식론은 인식의 기원이나 과정, 성격, 방법, 규준 등을 논하는 철학의 일분야이다. 즉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정확하고 심오한 지식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를 취급한다. 즉 인식론이란 지식의 본질, 범위, 전제요건 그리고 기반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그것의 역사가 바로 철학사와 같이 있을 정도로 밀접하고 깊이에 있어서 심오한 다양하다. 현대의 과학으로서의 정치학(Political Science)은 이러한 인식론에 있어서 『경험론』을 따른다.

2. 경험론

(1) 경험론이란?

경험론은 개념적인 사실(Fact) 과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인식의 원천을 오로지 경험에서만 구하는것으로서, 그 미표적인 기원은 17, 8세기의 영국 경험론 (에이리, 로크, 버클리 등등) 이며, 일체의 관념은 감각적 경험에서 생기는것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이것은 모든 종합적 명제는 그것이 명백한 것으로서당 아들여질 수 있기 전에반드시 관찰(observation)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경험론은 실재(reality) 에 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찾으며 하기 보다는, 어떠한 제의 명백함을 보장할 입증의 임장적인 표준을 만들려 하게한다.

한편, 제한된 현상에 관련된 정확하고 증명가능한 데이타(data)를 만들어 내는 경험론자, 현상의 범위는 넓히지만 명백함의 결을 떨어뜨리는 경험론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해결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선택은 주제의 흥미와 학문의 필요에 의존하게 된다.

(2) 경험론과 과학으로서의 접근법

정치학이 과학으로서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하드라도, 일차한 자연과학적인 경험론을 정치학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정치학자들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측정의 영역 이상의 요인이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치적인 현상은 비록 측정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관찰할수 있는 것에만 제한되어 질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서 정치학자들이 업적한 경험론 형이상학적이의 분명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여 있는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연구에있어서 이용되는 명백함의 표준은 그 연구의 성질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사실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단계를 위한 비판을 제공할 수 있는 가공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소스 인 조사방법의 이용과 새로운 시험적 기술, 그리고 주변과학 (심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으로 부터 얻은 유한 방법을 빌어와 비판한으로 의미있는 경험적 관찰을 수행하여 가야한다. 이것이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일반적인 기본 입장이다.

(3) 정치학에 있어서의 경험론 비판

경험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을 위한『사실』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학문의 실제적인 중요성과 상관없는 일로 연구를 유도할수 있다.

세째 학문에 있어서통계적인 데이타 (data) 에특권을 부여할수 있다

네째, 연구자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인식을 할 수 있는가, 과연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어떻게 주관이나 사상 지식을 제한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다섯째, 과연 어떠한 것이 일반이론 (General theory) 이 가능할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여섯째, 경험론은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을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곱째,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을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덟째, 에기치 않은 불 방사선화와 같이 입증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Ⅴ. 결론

인간이 학문을 추구하는 데있어서, 사실, 가치, 인식론의 문제는, 인간 투쟁의 한계점을 예상하고 논평할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것 같다.

하지만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음미해 보지 않아 없이 탐순하게 받아들일 때 발생되어지는 위험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이거나 『인식론』에 대해 증분한 논의없이 전개되어가는 학문은 어다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비록 결론이 복잡하고 문제라고 하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일해보는 것은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 방면에 연구이 있는 분들을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본다.

첫째, 『사실』과 『가치』사이의 방법론적 차이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가? 둘째, 가치관단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과학의 개념을 우리는 넓힐 수 있는가? 깊이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고 문헌>

①Brecht, A., Political Theory: The Foundations of Twentieth-Century Political Thought(Princeton Univ. Press, 1970)

②Dyke, V.,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Univ. Press, 1960)

③Isaak, A., Scope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Homewood, Dorsey Press, 1969)

④Meehan, B. J. The Theory and Method of Political Analysis (Homewood, Dorsey Press, 1965)

⑤A 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Gorld & Kob(ed), (The Free Press, 1965)

⑥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P. (ed) (The Macmillan Company & Free Press, 1972)

⑦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총서 제1집, 현대사회과학방법론(민음사, 1979)

⑧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총서 제7집, 사회과학의 결학(민음사, 1980)

〈대학원 점의과 2학기〉

'사실'과 '가치' 사이의 방법론적인 차이점을 우리 부정할수 있는가? 가치판단의 영역을 포함하도록 과학의 개념을 우리 넓힐 수 있는가?

사실과 사실과의 관계고찰이 선행조건

사실, 가치, 인식론을 단순히 전개한 학문은 위험

인간의 비합리적 행위의 관찰 방법 연구되어야

사실과 가치관단은 사람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실제로 누구에게나 공통되게 확인되어질 수 없다.

사실(Fact) 에 기반을 둔 가치관단에 있어서, 과학은 그러한 기반의 질(quality)에 기여를 할 수 있다. 관찰됨으로 이러한 가치의 문제에 치중하여 인간의가치관념에 대해 논력을 집중, 규범적인 정치철학이 되는, 이에는 큰게 세가지 입장이 있다.

3. 전통적인 규범적 정치철학

(1) 이성론(Rationalism)과 직관론 (Intuitionism)

이것은 Plato에서와 같이 궁극적인 진리가 이성적 과정(rational process)에 의해 발견되어 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특히, 직관론은 인간의 직관에 의해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입장은 학문을 천재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든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 위대한 두명의 철학자가 결코 진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일치하지 않을 때, 아무도 『무엇이 결국진리인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바람직한(desired)것과 좋은(good)것을 깊게 보는입장

이것은 19세기의 공리주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심리학인 행복감에의해 결정되기를 바라는 입장으로서 바람직한 것과 좋은것을 서로 같게보는 것 궁극적인 목적을 모두가 일치하게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치관의 문제가 위와 같이 세가지 입장에서 어떠게 취급되어져 왔든지 간에, 규범적인 정치철학은 정치, 인간의 행동이나 그 원동의 과정에 대한 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여 최선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히, 어떤 추리에 있어서의 결론유도에 대한 비판을 행하기도 한다. 또한 주어진 사회에 가치관념을 적용하려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서도 논평을 내린다.

4. 과학적인 가치 상대주의

이것은 진리나 가치의 립맥성을 부정하고 그 상대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서 일정한 조건이나 전제아래에서의 타당성을 찾고자하는 인간이 갖는 가치와 ②강력히 또는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어떤 개인의 아이디어(Ideas) 의 주가증투에 관계 없이 어떤 목적이 가치 있는가를 파악 필요로 결정한다는 것은잘가능하다는 입장을취한다.

결론적으로 과학적가치상주의에 의하면 『궁극적』이고 『최상의』 또는 『절대적』인 가치나 『가치의 표준』은 감정 신념 직관 본능 그리고 의지에 의해 선택되어 진다는것이어 그것들은 결국 과학에 의해서, 증명되어질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과학은 단지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있어서 포함되어있는 중요성과 위험성을 명백하게 해주어 그런한 가치에 관한 아이디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는데 있어서만 도움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치적 요소들은 항상 넘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확한 관찰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입장에,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을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어떻게, 에기치 않은 불 방사선화와 같이 입증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Ⅳ. 인식론

1. 인식론(Epistemology) 이란?

인식론은 인식의 기원이나 과정, 성격, 방법, 규준 등을 논하는 철학의 일분야이다. 즉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얻는가 정확하고 심오한 지식을 어떻게 진전시킬 것인가 등의 문제를 취급한다. 즉 인식론이란 지식의 본질, 범위, 전제요건 그리고 기반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론은 그것의 역사가 바로 철학사와 같이 있을 정도로 밀접하고 깊이에 있어서 심오한 다양하다. 현대의 과학으로서의 정치학(Political Science)은 이러한 인식론에 있어서 『경험론』을 따른다.

2. 경험론

(1) 경험론이란?

경험론은 개념적인 사실(Fact) 과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 인식의 원천을 오로지 경험에서만 구하는것으로서, 그 미표적인 기원은 17, 8세기의 영국 경험론 (에이리, 로크, 버클리 등등) 이며, 일체의 관념은 감각적 경험에서 생기는것이라고 간주한다. 또한 이것은 모든 종합적 명제는 그것이 명백한 것으로서당 아들여질 수 있기 전에반드시 관찰(observation)에 의해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경험론은 실재(reality) 에 관해서 절대적인 진리를찾으며 하기 보다는, 어떠한 제의 명백함을 보장할 입증의 임장적인 표준을 만들려 하게한다.

한편, 제한된 현상에 관련된 정확하고 증명가능한 데이타(data)를 만들어 내는 경험론자, 현상의 범위는 넓히지만 명백함의 결을 떨어뜨리는 경험론 사이에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해결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선택은 주제의 흥미와 학문의 필요에 의존하게 된다.

(2) 경험론과 과학으로서의 접근법

정치학이 과학으로서 정립되어져야 한다고 하드라도, 일차한 자연과학적인 경험론을 정치학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정치학자들은 직접적인 관찰이나 측정의 영역 이상의 요인이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치적인 현상은 비록 측정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관찰할수 있는 것에만 제한되어 질수 없다. 그렇다고 하여서 정치학자들이 업적한 경험론 형이상학적이의 분명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여 있는것은 아니다. 단지 어떤 연구에있어서 이용되는 명백함의 표준은 그 연구의 성질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사실을 명백히 하고, 그것을 또 다른 단계를 위한 비판을 제공할 수 있는 가공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소스 인 조사방법의 이용과 새로운 시험적 기술, 그리고 주변과학 (심리학, 사회학, 심리학 등) 으로 부터 얻은 유한 방법을 빌어와 비판한으로 의미있는 경험적 관찰을 수행하여 가야한다. 이것이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의 일반적인 기본 입장이다.

(3) 정치학에 있어서의 경험론 비판

경험론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실을 위한『사실』이 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학문의 실제적인 중요성과 상관없는 일로 연구를 유도할수 있다.

세째 학문에 있어서통계적인 데이타 (data) 에특권을 부여할수 있다

네째, 연구자가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인식을 할 수 있는가, 과연이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어떻게 주관이나 사상 지식을 제한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된다.

다섯째, 과연 어떠한 것이 일반이론 (General theory) 이 가능할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여섯째, 경험론은 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을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곱째, 과연 신빙성있는 자료들을 모을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여덟째, 에기치 않은 불 방사선화와 같이 입증형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Ⅴ. 결론

인간이 학문을 추구하는 데있어서, 사실, 가치, 인식론의 문제는, 인간 투쟁의 한계점을 예상하고 논평할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것 같다.

하지만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말을 진지하게 음미해 보지 않아 없이 탐순하게 받아들일 때 발생되어지는 위험성과 마찬가지로 『사실』이거나 『인식론』에 대해 증분한 논의없이 전개되어가는 학문은 어다한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비록 결론이 복잡하고 문제라고 하드라도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일해보는 것은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앞으로 이 방면에 연구이 있는 분들을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두가지 문제를 제기하여 본다.

첫째, 『사실』과 『가치』사이의 방법론적 차이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있는가? 둘째, 가치관단의 영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과학의 개념을 우리는 넓힐 수 있는가? 깊이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고 문헌>

①Brecht, A., Political Theory: The Foundations of Twentieth-Century Political Thought(Princeton Univ. Press, 1970)

②Dyke, V., Political Science: A Philosophical Analysis (Stanford Univ. Press, 1960)

③Isaak, A., Scope and Methods of Political Science (Homewood, Dorsey Press, 1969)

④Meehan, B. J. The Theory and Method of Political Analysis (Homewood, Dorsey Press, 1965)

⑤A Dictionary of Social Sciences, Gorld & Kob(ed), (The Free Press, 1965)

⑥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ward, P. (ed) (The Macmillan Company & Free Press, 1972)

⑦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총서 제1집, 현대사회과학방법론(민음사, 1979)

⑧한국사회과학연구소편, 사회과학총서 제7집, 사회과학의 결학(민음사, 1980)

〈대학원 점의과 2학기〉

사설

중간 고사와 학생의 태도

사람은 일생동안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밖의 어려 곳에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을 하되 그것은 유복적 적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만이 공유하는 하나의 치외법권이다. 그런데 학생들이 하는 일은 학교가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일을 제공한다는데에서, 또 일정한 시기에 가서 그 일을 완성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는다는데에서 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을 통하여 치루어진 각종 시험은 배우는 과정에 있는학생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있다. 즉 학생 스스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반성해 볼 기회가 주어지므로써 앞으로 자기가 해야할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나침반의 역할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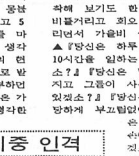
이번 주부터 본교에도 예외없이 연중행사로 찾아오는 중간고사가 실시된다. 학교에서 가하는 시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면 시험이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어떻게 접성하고 있어야 하는가? 대학생으로서 하반등 음미해 볼만한 과제이다. 시험기간중 남겨둬는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그 동안의 강의내용을 복사하는 일이다 답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평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이고 학생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일이라 하지않을 수 없다. 친구로부터 노트를 빌려 복사하는 형위는 『당일치기』라는 시험직전으로 연결된다.

『당일치기』의 작전은 시험의 성적을 단리는데는상당한 효과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시험이 끝난 뒤부 그것의 효과는 떨어져 결말 내가 학교조직을 통하여 성취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회의에 빠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이 『당일치기』가 갖는 위험의 또 하나는 『건달』이라는 바람직하지못한 행동으로 유도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사태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대학교의 학업에 대한 종료를 가능하는 하나의 척도는 이와 같이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에서 찾아 냄수 있다.

대학 교육이 중·고등학교와 다른 하나의 특징은 자율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학업 태도는 대학생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기가 생는 실력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함으로써 교수와 학생간의 학문적 인간관계는 물론 그 대화의 폭을 넓히는 포함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또한 시험이 갖는 하나의 특징이다. 시험이 갖는 이러한 특성을 이해한다면, 시험에 대한우리의 태도는 좀 더 개방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시험에 대하여 부담감을 느낀다는지, 그러면서 좋은 성적만을 얻어야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시험에 임하게되면 학교 교육을다 부리 잣는 마방생활이 부끄러워에 진단 것이다. 물과 한달 정도의 짧은 수업을 마치고 중간고사에임하지만, 수업시간에 교수와의 대화 가운데에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야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면 한없이 짧은 기간일 수없다. 도서관에 발길이 분비고, 또 빈 강의실을 찾아 차분한 마음으로 그 동안 미루어 놓은 학업을 점검하자.

미네르바

이중 인격



▲거북선을 피우고 파아이프크가 든 몽블랑 만년필을 쓰고 5백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빈민을 생각한다. 부정불능의 현실 현상 그러모 밥아줄이기를 거부하면서도 그런 것 같은 가면을 쓰고 『사르노 베이유』를 생각한다. 좀 더 철저히 변장하기 위해 스스로 커뮤이 내려진 실에 중독되어 버리고는 번쩍임의 논리로 굳어버린다.

허무와 고독과 패배의 절망감속에 괴로워 하면서 죽음을 삶으로자면을 도약으로 해곡시키며 자신의 광기 (狂氣)를 숨기려 한다. 논리도 없고, 감정도 메마른 세상에 눈물 흘리지만 비논리와 무감정이 진정 진중의 아픔을 배가시키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는다.

▲일국은 자신의 학력부에 상처를 남기고 대학의 부대복로 사라져 가는 벚꽃 선후배의 뒷모습을 보고도 그 틈을 대신하여 『글고다』의 상정 (山頂) 으로 오르기를 포기하고 있다. 밤새워 술을 마시고 들같은 머릿속에 밤새연기를 쟁여대어, 또는 냉혹한 현실에서 눈감기 위해 치솟한 관념조작으로 몇 마디의 변명구를 만들어 내고는 나약한 감상의 순수성에 집착해 보기도 한다. 독기으론 술기운에 비틀거리고 희소 (稀少) 의 눈밭을 들리면서 가끔씩 속으로 절어든다.

▲『당신은 하루 1700원을 벌기 위해 1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 보았소?』『당신은 당장에 교복을 벗어 던지고 그들이 사는 세계로 뛰어들 수 있겠소?』『당신은 자신의 신념에 합당하게 부고법없이 지내왔소?』『당신은 기름때 묻은 그들의 손에 키스를 해줄 수있겠소?』자꾸·자꾸의 알려한 뒤바어 먼리도 슬리보다도 우리에게는 마방감 해단이 없다.

▲도피나 절망, 회의, 패배, 번명바위라면 무선 집어 치우자. 우리의 이중인격과 이을배반적 행동을 이정들로 더욱 더욱 더딘힘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엇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경어버렸는지 오늘 나이 지새도록 이야기해 보자. 여무슨 방, 이메운로기의 괴리이라고 쳇어 모아, 원쉐의 그림자를 걷우어 놓고, 돈많은 스무무우지와 불타는 로마에 장탄하는 네로황제의 영혼속으로 찾아가자.

팔매신년과 불요불굴의 용기반이. 입음장은 이성과 감남위에서도 입고 설수있는 논리없이 비겁과 무책임의 근재에 무서운 귀감이 되지 않을까.

성적처리에 관한 건 공고

성적처리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유념하여 학인하기 바람.

1. 중간·기말 시험 중 1개시험을 결시한 경우
2. 시험담지 성명 미기재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3.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하여 성적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4.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제도가 있음
5. 부정행위자의 성적 처리
6. 기 타

1. 중간·기말 시험 중 1개시험을 결시한 경우
   ①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②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③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2. 시험담지 성명 미기재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①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②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③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3.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하여 성적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
   ①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②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③ 학수표상 수강과목 오기 및 누락으로 인한 성적은 인정 받을 수 없음.
4.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제도가 있음
   ①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제도가 있음
   ②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제도가 있음
   ③ 등록금 납입 및 장학금제도가 있음
5. 부정행위자의 성적 처리
   ①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②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③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6. 기 타
   ①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②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③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④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⑤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⑥ 결시한 시험의 해당 시험기간에 시험담당자를 찾아가야 함.

1981년 10월 일 교 무 처 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대표=1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길 270번지, 전화=대표 8-1119 (대표) 팩스=(대표) 외국어대학교 부속초등학교=704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산 29번지, 전화=대표 4-7228 (대표) 면목국민학교

1면에서 계속

내용		1차 전형 일시	1차 전형 일시	2차 전형 일시	2차 전형 일시	추가전형	장소	비고
7. 유의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이규호 문교장관에게 듣는다

대학과 현실사회의 괴리는 사실 학원사태와 그에 대한 과도한 행정집행등의 근원이 되어왔다 합니다.

오늘날의 이같은 현실에서 대학인과 사회의 책임있는 당국자와의 대화는 민생적인 학원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일익이 될수도 있음을 감과할 수는 없읍니다. 이에 본보는 지난 9월18일 이규호 문교부장관에게 서면 질의서를 발송, 그 답변에 대한 답변을 게재합니다.

이번 서면질의가 그동안 빈발한 학원사태와 당면한 대학의 문제점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학생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의문점과 문제점을 모두 포함시키지 못한 점이 있다면 학생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편집자주>

당면한 학원문제에 관하여

답·종속 이론의 과신, 과격한 행동은 경제발전 지장초래

문·일부 학생 운동의 좌경시(視)는 본질에 빗나간 해석

요즘날 우리나라 교육집단에 걸쳐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노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와 당면한 학원문제를 해결하려는 일환으로 학생들과 무궁히 대화를 가지고자 하시는 의도에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학원문제와 관련한 장관님의 소신이 학생들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과 대학의 내실을 위한 일차적 단계가 될수 있으리라 믿고 있읍니다.

학생은 아니면, 사회인만의 관심사이기도 한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한 솔직한 답안을 원고자 합니다.

【문·1】 장관님께서는 학원 개방에 조금 전국 대학 총학장회의에서 「앞으로 어떤사태가 벌어지든 휴강·휴교는 없을수 없으며, 또 그런 사태를 스스로 유발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대학은 존재이유를 의심받게 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오즉 강경책만 앞세운 대응은 학생지도방식을 오히려 학생들을 자극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 장관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학생지도」의 바람직한 방법을 어떠한 것인지요?

○…학생지도, 인격적 대화 통해

【답】 여러분이 아는 바와같이 오늘날 우리는 문학과 기술을 위시한 모든 학문집단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는 지식들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빠른 발전과 변화는 학문을 연구하고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태반도 학학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학자들도 2·3년만 그러한 발전에 앞뒷주지 못하면 구태를 답습하지 못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니다.

그럼에, 우리나라는 해방후 우리 민족의 줄때 억눌렸던 창작열에 부응하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대학들을 짧지요로 보강될 단비도 없이 세웠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인 수준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읍니다. 그런데도 종래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문제를 매우 소홀하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육 행정가들이 이에 더한 관심의식조차 거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에 나타나는 많은 비생산적인 현상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문들의 질적인 수준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학문연구의 보람과 지성의 생산성만이 우리나라 대학들 주변의 불적(弱的)인 현상들을 치유(治癒)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과기술은 인간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으로 등장하게 되었읍니다. 식량문제, 공해문제, 자원문제 그리고 번영을 위한 경제성장의 문제들은 거의 전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읍니다. 따라서 과학과기술에서 뒤떨어지고 우리의 생산력은 정의에서 그같이 보 우리의 어떤 한도 심연을 수가 없읍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여러분의 사명은 과연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론과 실천의 연관관계를 많이 장조했습니다 나도 이론과 실천은 인간의 삶의 측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어떤 측면서 이랗게 성립하더라도 그것은 실익은 이론을 조금하게 과격한 행동과 결부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읍니다. 조급한 행동과 결부되어 버린면 이론은 이미 그 틀에 얽매여서 진리를 향해서 뻗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나는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당면한 관심은 역시 할 생각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학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적 비오·밥시즘은 그의 비판이론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의 연관관계를 많이 장조했습니다 나도 이론과 실천은 인간의 삶의 측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어떤 측면서 이랗게 성립하더라도 그것은 실익은 이론을 조금하게 과격한 행동과 결부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읍니다. 조급한 행동과 결부되어 버린면 이론은 이미 그 틀에 얽매여서 진리를 향해서 뻗어갈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나는 『학원에 대한 학생들의 당면한 관심은 역시 할 생각은 전연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학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관심과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적 비오·밥시즘은 그의 비판이론을 통해서 이론과 실천의 연관관계를 많이 장조했습니다 나도 이론과 실천은 인간의 삶의 측면들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삶은 언제 적정의 위기의 상황 속에 있었고 지금도 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떠한 위기가 닥쳐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바라는 『자율적인 토론의 장』은 독단주의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서 과격한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읍니다.

【문·3】 대학 「학생 심포지엄」 시연설의 답변을 통해 장관님은 한국의 현실에서 「힘의 지배는 정의실현을 위해 정당화 된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지의 학원사태가 「정당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근래의 학원사태 역시 대안 (代案) 요로서의 「정당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집니다.

「현실의 부조리한 상황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의식화계층」으로서 사인하는 학생들은 「힘의 지배」가 「정의실현」이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으리라 믿는다면, 장관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심니까?

○…「힘의 지배」 존립할 수 없어

【답】 현재 서울대와 「대학신문」의 첫번째 질문이 「힘의 논리」에 대한

산업사회의 문화마찌

다. 계층문화의 구분이 애매해지고 전통문화나 민중문화는 대량생산되, 백제지배적 산업화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유발시키며 대중문화의 주류를 이루고그 범위를 확산시킬 문화매체의우월과 속성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한다.

차 례

①대중문화 서설(序說)
②성화에서 비디오
③TV와 유선방송
④대중사회의 잡지
⑤대중가요와 오디오
⑥산업미술과 광고
⑦압화속의 대중의식

대중문화 서설(序說) <1>

이 상 희 <서울대·신문학과부교수>

대중문화 매체에 지배되는 사회
정치적 무관심 조장의 경향높아
대량 생산·소비 문화 획일화 필연

「대중문화」(Mass Culture)란 한마디로 테크노로지에 의해서 대량생산되고 대량소비되고있는 문화를 말한다. 이 경우의 테크노로지란 주로 고속윤전기 정밀인쇄기, 라디오, 텔레비전, 음반, 비디오·테잎, 카셋등을 말한다. 말하자면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전파(伝播)되는 문화가 대중문화인 셈이다. 대중문화란 이와같이 테크노로지에 의해서 대량생산되고 대량소비되기 때문에 규격화되고 피일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성격은 결국 독창성(独創性)이나 개성나아가서는 예술성이나 창작성의 결여를 가져오기쉽다.

대중문화가 그와같은 경향을 띨수 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운명적으로 상품문화(商品文化)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버도날드」라는 연구자는 대중문화를 가리켜서 「유일김과같이 대량소비를 함으로써 이윤추구를 달성하는 상품에 불과하다」고 했던 것이다. 결국 대중문화란 문화의 영역에 마저도 자본의 논리가 개입됨으로써 등장한 문화형태에 불과하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립가능했던 것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체제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김에도 보통교육 (普通教育)의 보급과 생활수준의 사상적여유가 생김으로써 일반인중들의 문화적 욕구나 문화적수요가 생겨났으며, 그것이 곧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화의 시장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문화적 시장에 비교적 잦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테크노로지의 발달로써의 대량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즉 문화적 시장의 출현, 테크노로지에 의한 잦은 문화상품의 공급가능성을 앞에 놓고 자본의 논리 즉 이윤추구의 생태(生態)가 작용한 결과가 대중문화인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란 이와같은 언어·요약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테크노로지로 대중문화는 규격화·획일화되고 있다.

테디 데이드씨 의식이나 심발 규격화된 가구나 가전제품, 신식이는 획일적인주택양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텔레비그에 오에 임시 쥬스나 핫 도그에나 코카콜라로 점심을 때우는식으로 먹는 음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의 생활양식전반에 대중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결국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문화는 역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생활양식을가져오고, 이와같은 생활양식은 어떤 눈에 보이지않는 메카니즘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로보트와도 같은 인간군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와같은 획일성은 현실생활에있어서의 균등(均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화에 포로가 되어있는 인간들은 돈, 권력, 사회적지위, 사랑, 안락한 가정 그리고 이른바 「참 있는」 삶을 쟈자기추구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회적가치나 목표(goal)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워져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및 키로미터나 앞에서 자전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로 달리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수십킬로미터나 뒤떨어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문화적 시장에 비교적 잦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테크노로지의 발달로써의 대량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즉 문화적 시장의 출현, 테크노로지에 의한 잦은 문화상품의 공급가능성을 앞에 놓고 자본의 논리 즉 이윤추구의 생태(生態)가 작용한 결과가 대중문화인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란 이와같은 언어·요약의 영역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대중화에 포로가 되어있는 인간들은 돈, 권력, 사회적지위, 사랑, 안락한 가정 그리고 이른바 「참 있는」 삶을 제자기추구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회적가치나 목표(goal)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워져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및 키로미터나 앞에서 자전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로 달리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수십킬로미터나 뒤떨어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다.

결국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문화는 역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생활양식을가져오고, 이와같은 생활양식은 어떤 눈에 보이지않는 메카니즘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는 로보트와도 같은 인간군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와같은 획일성은 현실생활에있어서의 균등(均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화에 포로가 되어있는 인간들은 돈, 권력, 사회적지위, 사랑, 안락한 가정 그리고 이른바 「참 있는」 삶을 제자기추구한다.

그러나 그와같은 사회적가치나 목표(goal)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나 기회는 균등하게 주워져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및 키로미터나 앞에서 자전거나 심지어는 자동차로 달리는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 수십킬로미터나 뒤떨어진 곳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와같은 문화적 시장에 비교적 잦은 상품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테크노로지의 발달로써의 대량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 즉 문화적 시장의 출현, 테크노로지에 의한 잦은 문화상품의 공급가능성을 앞에 놓고 자본의 논리 즉 이윤추구의 생태(生態)가 작용한 결과가 대중문화인것이다.

그러나 대중문화란 이와같은 언어·요약의 영역에만 그치